

## 2024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화투데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갈 2025년의 강화를 응원합니다!



#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걸음

##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 역할 기대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용철 군수 제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화군 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4인이 참석해 '군민통합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민통합위원회'는 3월에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고, 주요 정책을 군민과

공유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철 군수는 "인구소멸위기 해결, 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화군에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강화발전을 견인하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군민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회의 개최

# 강화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203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6.4%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용철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34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6.4%를 감축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기관인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조경두센터장이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목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이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자문내용을 반영해 최종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4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매년 이행평가를 진행해 온실가스 감축 세부 추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인천시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적 노력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꾸준히 발굴·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군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강화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16일, 민선 제10대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박용철 군수 주재로 ‘공약사항 세부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지난달 11월 7일부터 11일 까지 공약사업 사전검토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여 공약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개분야 93건의 공약사항에 대해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 자원조달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책 등을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민선 제10대 강화군수 주요 공약사업인 ▲군민 통합위원회 운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농촌특화지구 도입 ▲무상 교통비(택시) 지원 확대 ▲통합관제센터 신축 등 공약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향후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 이행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민선 10대 공약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군민의 절박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 北 소음방송 피해지역 방음창 설치 시작

### 박용철 군수, 피해주민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대남방송 피해대책 현장



대남방송 피해대책 현장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1일 북한 소음 방송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35 가구가 신청했고, 12월 21일 두 가구를 시작으로 방음창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 가구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강화군이 긴급하게 예산 3.5억원을 확보해 피해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가 가장 큰 송해면 당산리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 7월부터 송해면 당산리 마을은 북한의 확성기와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어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최대 81dB)에 지속 노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11월 1일 관내 전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남북긴장 관계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향후 북한 소음방송 피해 완화를 위해 방음시설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관심과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사업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개최

## 어민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현대화시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8일 하점면 창후리 창후항에서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준공을 축하했다.

군은 총 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물양장 확장, 부잔교 신설 및 공동창고 신축으로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해 어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창후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사업에 착수하고 4년 만에 완료해 창후항을 현대화시설을 갖춘 어항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어관장, 어민사무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센터 신축, 공원광장 조성으로 주민과 방문객들이 창후항의 자연경관을 감상

하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의덕 창후 어촌계장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교동도를 연결하는 선착장 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된 어항시설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던 창후항이 이번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어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창후항은 강화군 최북단의 낙후된 지방 어항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어촌으로 거듭났다."며, "이에 따라 지역 상권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제10대 군정 동안 다양한 수산 정책을 통해 강화군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수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 강화군,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한 서비스 원스톱 제공 목표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 주민간담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일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 학생, 청소년 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내 청소년 시설 집중, 기능 재배치 등의 구성안과 청소년수련관의 신축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진로직업·체육·여가 등 필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감형 미래체험관, 강화문화체육센터 등의 시설이 밀집한 강화읍 신문리 일대에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강화읍 외곽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해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렵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을 사업대상지로 이전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화군 청소년의 미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의 미래성장동력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 박승한 의원 본회의서 대표 발의



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가 지난 1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시·도의회 의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승한 의원은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며,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강화군의회, 2024년도 의회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강화군의회 2024년 의회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는 지난 17일 2024년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과보고회에는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을 비롯해 박승한 의원, 오현식 의원, 박흥열 의원, 최종찬 의원, 고복숙 의원이 참석해 의회 운영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강화군의회는 2024년 ‘군민과 함께! 행정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호우피해 재해 현장 점검 ▲명절 기관 위문 방문 ▲사랑방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을 실시했다.

또한 의회 청사를 지상 4층으로 증축해 지역 현안을 연구하는 의원사무실과 이를 보조할 전문 의원실을 마련했으며,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군민이 불편 없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올 한 해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힘써왔던 것처럼 2025년에도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는 강화군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

## 선제적 상황 판단 및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폭설로 인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차량 배치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9개반 35명으로 구성된 한파대응 T/F팀 운영해 대설·한파에 따른 선제적 상황 판단 및 신속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황에 즉각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에 난방용품지원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 시설 설치 ▲한파쉼터 관리 ▲마을방송 전달체계 정비 등 각 분야별로 한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상습 결빙 및 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제설대책본부운영과, 280명의 트랙터 제설단을 통해 신속한 제설로 군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은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함께 대응에 나서며, 각종 매체를 통해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순무 뿌리혹병 저감 연구’ 박차

## 농촌진흥청 협력, 순무 품질 고급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강화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순무에 많이 발생하는 뿌리혹병 저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뿌리혹병은 배추과 작물에 발생하는 토양전염성 병으로 강화순무처럼 같은 작물을 한자리에서 계속 재배하는 경우 더 쉽게 발생하며, 발

병 후 방제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뿌리혹병이 발생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이는 품질 저하, 수확량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재배 농가의 큰 고민 중 하나이다.

이에 강화군은 병저항성 품종 육성, 재배 방법 개선 연구 등 지역특화작목인 순무의 품질 고급

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순무의 뿌리혹병저감 및 생육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 방제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방제 기술은 토양개량제를 이용하여 재배지 토양의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함으로써 작물 생육에 유리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 1년차 연구로 현장실증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하여 향후 농가 현장에 방제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품종개발과 더불어 순무뿌리혹병 저감을 위한 친환경 방제 기술 활용으로 강화순무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순무 생육조사

# 강화군 행복센터,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무리

## 분야별·세대별 맞춤교육 제공 /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특강 개설



강화군 행복센터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강화군 행복센터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가 과정)



강화군 행복센터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특강)

강화군 행복센터가 올해에는 총 163개 프로그램에 2,556명의 주민이 교육에 참여해 뜻깊은 배움의 시간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개관한 강화군 행복센터는 자격증·어학·미술·식음료·건강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풍성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행복센터 자격증 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증 10명(한식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떡 제조 기능사) ▲민간자격증 101명(커피바리스타, 독서논술&그

림책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24년에는 일반 프로그램 외에도 트렌드를 반영한 필라테스, 메이크업 등 관내에 없던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발굴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과정 및 어린이과정도 운영해 세대별 맞춤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관내 인프라와 협업한 전문 교육 운영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세프고등학교와 함께한 요리 특강, 전등사와 함께한 사찰 요리 특강, 금풍양조장과 함께한 막걸리 특강 등이 대표적이다.

한석현 사무국장은 “기존에 주민들의 수요가 높았던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운영하며, 다양한 세대가 원하는 강좌는 새롭게 발굴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행복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월 중 수강생 모집 및 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행복센터(☎032-934-3901~2)로 문의하면 된다.

# 바르게살기 강화군 협의회 『2024년 회원대회 및 성과보고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는 지난 27일 강화읍 중앙 뷔페에서 2024년 회원대회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자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회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지난 1년간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가 진행한 활동을 격려했다.

행사는 영상 시청을 통한 추진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유공회원 포상, 축사, 기념공연, 저녁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임인관 회장은 “올 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원들은 진실, 질서, 화합의 취지에 맞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의 헌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없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가 힘을 더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보고회 및 회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평가보고회 및 회원대회

# 동막해변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 완료

##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 완료하여 상권 활성화 및 피크닉 요소 갖춤



동막해변 휴식공간 조성(달 조형물)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24일 2년여에 걸친 동막해변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대표 관광명소인 동막해변의 소나무밭 일부 수목이 고사되어, 지난해 토양개량 및 맥문동 식재로 소나무밭 생육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 휴식공간 조성까지 총 6억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 동막해변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군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해변의 노후 시설물을 대폭 정비하고, 야영데크 설치, 약 360m의 해변보행로 조성, 세족장·개수대, 달빛 포토존, 저어새 조형물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야영데크 및 해변 보행로는 해변

에서 캠핑과 해변 관람을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기획했다.

이는 동막의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피크닉 요소를 강화해야한다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해변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소나무밭 중심부에는 광장이 조성되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할 수 있다. 저어새, 칠게, 좁쌀무늬고둥 등 8가지 강화 바다의 대표 생물을 돌판에 아로새긴 아트플로어로 기획된 광장에는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유치해 해변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동막해변의 새로운 변화는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쉽고 힐링이 있는 소나무밭과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동막해변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막해변은 캠핑, 낙조, 해수욕 및 갯벌 체험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음 및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동막해변 휴식공간 조성(중앙광장)



동막해변 휴식공간 조성(해변보행로)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강화군 온라인 셀러  
창업지원 사업

+

강화군 로컬 비즈니스  
창업 과정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가 인천시 주관 「2025년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강화군 온라인 셀러 창업지원 사업'과 '강화군 로컬 비즈니스 창업 과정'이다.

강화군 온라인 셀러 창업지원 사업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까지 실전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화군 로컬 비즈니스 창업 과정은 로컬 영상기획·촬영·편집·제작 과정을 통한 홍보 역량과 창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강화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윤정혁 센터장은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민에게 온오프라인 홍보와 판매 유통 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국제도시 지정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 7만 군민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지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강화국제도시 지정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일 길상면사무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국제도시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그동안 진행 상황과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

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7일 산업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강화군 길상면·화도면·양도면 일원 20.26km<sup>2</sup>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10년 동안 3조 7천억원을 투입,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산업 단지와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물류시설, 해양레저·휴양 복합관광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가 본격 시작되었으며, 7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위반 시 5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도 제한 대상, 공회전 제한시간도 2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 전지역 공회전 금지**

- ✓ 인천시 전 지역 공회전 NO!  
※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 ✓ 공회전 허용시간 2분!  
※ 대기온도가 0℃ 미만(겨울) 이거나 30℃ 이상(여름)일 경우 공회전 제한 미적용
- ✓ '25. 1. 1.부터 오토바이도 공회전 금지!
-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문의 및 신고: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관할 군·구 환경과

주·정·차·시 시민들 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역사  
기고

## 운요호 사건의 진실

이경수



강화부지도 초지진 포대(출처 서울대도서관)



운요호

## 운양호·운요호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의 침략입니다. 다시 또 강화도입니다. 신미양요 4년 뒤 1875년(고종 12) 9월, 초지진 앞바다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나타납니다. 쌍방 포격전 끝에 운요호가 퇴각합니다. 이를 '운요호 사건'이라고 불려요.

독자분들 대개가 학창시절에 운양호 사건(雲揚號事件)으로 배웠을 겁니다. 한자 그대로 읽은 거지요.

지금은 해당 나라 발음에 가깝게 읽는 원칙이 서서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택동을 마오쩌둥으로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이 전함(戰艦)을 '함'으로 부르고 수송선을 '호'라고 했대요. '운요호'보다는 '운요함'이 더 정확한 호칭인 셈입니다만, 이 글에서는 역사용어로 굳어진 '운요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 메이지유신

이제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은 막부(幕府, 바쿠후) 체제였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막부의 우두머리인 쇼군(將軍)입니다. 쇼군은 일본 땅을 여러 개의 번(藩)으로 나누고, 각 번을 다이묘(大名)라고 하는 영주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일종의 봉건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국왕

이 있었지만, 국왕은 아무런 실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막부가 에도막부입니다. 임진왜란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川家康]가 에도(도쿄)에 연 무사정권입니다. 1854년, 에도막부는 미국의 함포 위협에 굴복해서 미·일 화친조약(1854)을 맺고 개항합니다.

1867년, 커다란 정치 변혁이 일어납니다.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선 것이예요. 새 정부의 우두머리는 '천황', 메이지[明治] '천황'입니다. 오랜 세월 이름뿐이었던 '천황'이 실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번은 폐지됐습니다. 일본은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탈바꿈하며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라고 하지요.

## 서계 갈등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서계(書契, 외교문서)를 보내 자기 나라의 정치 변동 사실을 알리고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이 보낸 서계 접수를 거부합니다. 보내고 거부하고 보내고 거부하면서 양국의 감정이 쌓여갑니다.

일본이 조선에 보내던 서계는 양식과 격식이 아주 엄격한 공문서입니다. 몇백 년간 그 원칙이 흐트러짐 없이 지켜졌습니다. 그랬는데 메이지 정부가 전통을 깎그리 무시한 양식의 서계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일본 서계에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특정한 글자들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일본 국왕이 대외적으로도 황제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국왕이 중국 황제와 동급이면, 조선은 졸지에 일본의 아래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조선이 서계를 받으면, 조선보다 일본이 상위 나라임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서계 접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도 서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쇄국정책'을 강하게 펼치던 흥선대원군이 정권에서 밀려났습니다. 고종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이때다, 싶은 일본이 운요호 등 군함을 조선으로 보냅니다. 곳곳에서 함포를 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선 조정을 위협해서 서계를 접수하게 하고, 그래서 조선이 메이지 정부와 새로이 국교를 체결하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운요호는 일본이 영국에서 구입한 증기선입니다. 길이 약 38m 크기인 목조 포함(砲艦)으로 승선 정원은 70여 명입니다.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수심을 측량하고 조선의 방어 상태 등도 살피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다시 옵니다. 강화로.

## 일본군을 격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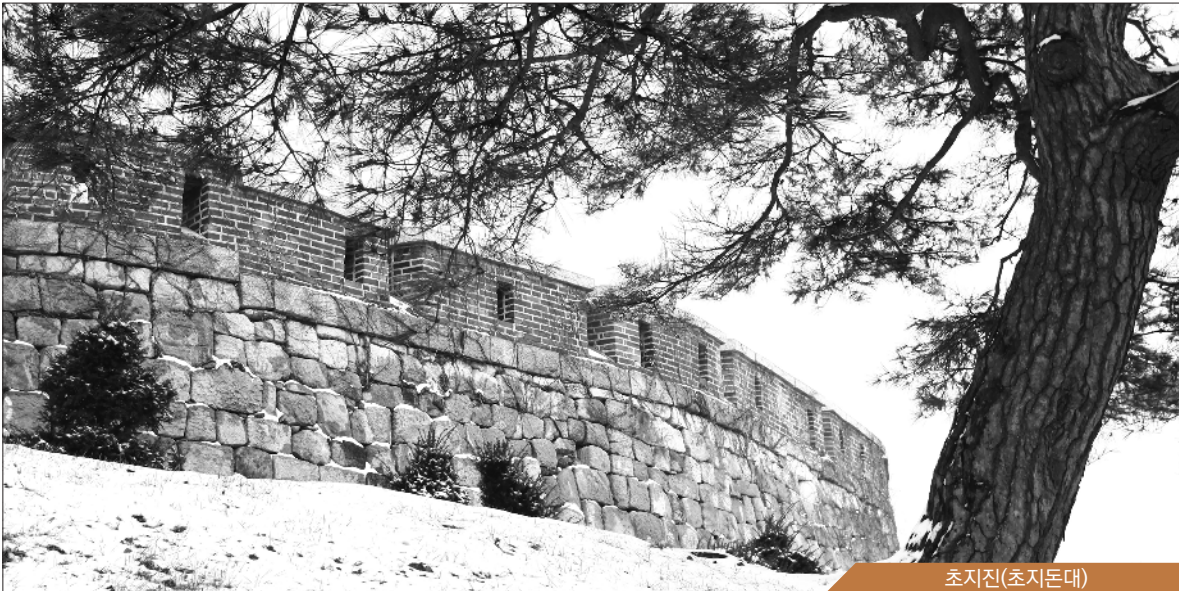
1875년(고종 12) 9월 19일, 운요호가 인천 월미도 근처까지 와서 정박합니다. 9월 20일(음력 8월 21일),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일본군 일부가 보트에 옮겨 타고 강화도 쪽으로 올라와 초지진 앞바다에 이르러 오락가락합니다. 작은 배로 온 것은 상륙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방적인 침입에 맞서 초지진 수비군이 포격합니다. 조준 사격이 아니라 더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사격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일본군이 초지진을 향해 총을 쏘아댁니다.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30분 정도 흐른 뒤 일본군은 강화도 상륙을 포기하고 운요호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9월 21일 오전, 운요호가 직접 올라옵니다. 황산도를 지나와서 초지진 쪽으로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초지진 포대에서 대응 사격을 하면서 쌍방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집니다. 대략 두 시간 정도였습니다.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는 강화도에 상륙하지 못하는 건 국가의 치욕[國辱]이라며 군사들을 몰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비군의 반격에 눌러 상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굳이 결과를 따지자면, 조선의 승리요, 일본의 패배인 것입니다.

신미양요 때 초지진 수비군은 미군의 함포 사격이 시작되자 바로 철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요호 사건 때는 물러섬 없이 싸웠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적선이 물러갈 때까지 포를 쏘



초지진(초지돈대)

고 또 봤습니다.

신미양요 겪은 뒤에 신헌 유수 주도로 설치한 포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초지돈대(초지진) 바로 아래 바닷가 쪽으로도 포 구멍 여섯 개짜리 포대가 있었습니다. 포대에는 포탄의 크기를 키우고 사거리를 늘린 새로운 화포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운요호에 타고 있던 스키키라는 병사가 자기 동생에게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20일...그 포대에서 우리 보트를 향해 갑자기 크고 작은 포를 난발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소총을 쥐고 여기에 응전 하였으나 그 기세를 당해내기 어려웠다. 다행히도 분함까지 무사히 퇴각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21일...저들 역시 맹렬하게 크고 작은 대포를 난사했다. 우리 함선에서는 100근, 40근, 20근 등의 포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적은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 영종성이 불타다

이노우에 함장, 큰소리 뽕뽕 치고 강화까지 왔는데, 자기 말대로 ‘국욕(國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철수하기 전 황산도에 상륙해서 여기저기 부수고 불지르면서 화를 퓌니다. 당시 황산도에는 조선 수비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산도를 떠난 운요호, 이번에는 영종도에 상륙합니다. 9월 22일입니다. 조선군과 전투 끝에 상륙에 성공한 일본군은 대포 36문을 포함한 무기들을 탈취해 갑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어쨌든 조선군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보고하려면, 증거물품, 그러니까 ‘전리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성의 무기들을 끌어간 겁니다. 일본군에 의해 영종성은 불탔고 많은 주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 식수 구하러 왔다고?

운요호 사건 자료를 검색해보면, 대개 중국 잉커우로 가던 운요호가 식수를 구하려고 강화 초지진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요동반

도 바로 위에 있는 우장(牛莊)이 잉커우입니다.

싸우겠다고 온 게 아니라 물 좀 달라고 온 건데, 초지진의 조선 수비군들은 물 대신 포탄을 쏘았습니다. 인도적으로 볼 때, 조선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잘못이 없습니다. 식수 얘기는 일본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은 월미도에도 영종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서 구하면 되지 굳이 물살 사나운 강화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꾸며낸 식수 얘기 때문에 조선은 인도주의도 모르는 야만적인 나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조선에 공격당한 일본 운요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습니다. 피해자는 조선이요, 가해자가 일본인데, 일본은 피해자가 됐고, 조선이 가해자가 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 진짜로 변신한 가짜

이노우에 함장이 운요호 사건 보고서를 자세하게 써서 일본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다시 쓰라고 명령합니다. 자기네에게 여러모로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빼고, 이 말은 이렇게 바꾸고, 이 말을 새로 넣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재작성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이노우에는 정부 명령에 따라 허위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일본 정부는 원 보고서를 감춰두고 새로 쓴 2차 보고서 그러니까 허위 보고서만 대내외에 공개하면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2차 보고서에 물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와, 일본 배에 일본 국기를 달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말은 곧, 운요호가 식수 구하러 온 것이 아니며, 자기네 국기도 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남의 나라 해안으로 무단 진입하는 것은 침략 행위입니다.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한 불법에



강화유수 신헌 화상(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해당합니다. 다만 식수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위급 상황 때 국기를 달아 국적을 밝히고 물을 구하러 들어가는 것은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달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들이 꼭꼭 숨겨두었던 1차 보고서가 얼마 전 예야 공개됐습니다. 뒤늦게 세상에 진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본군이 강화의 초지진을 점령하고 각종 무기도 탈취해 갔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역사책이나 각종 신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습니다. 일본군은 초지진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강화에서 철수하던 일본군이 영종도에 상륙해 몹쓸 짓 한 것이 초지진에서 벌어진 일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초지진 수비군의 공격을 처음 받았을 때 운요호 이노우에 함장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는 강화도로 향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조선) 만일 발표한다면 다행이다.” 일본군 보트가 초지진 앞을 오가며 집적거리며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만, 초지진 수비군의 방어능력을 과소평가한 잘못 때문에 상륙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야 했던 것이지요.

운요호 사건이 벌어진 때가 1875년입니다. 새해가 2025년입니다. 300년 전 그날, 강화 초지진에서 벌어졌던 일본의 침략 행위를 되새깁니다.

기고

# 역사는 말한다...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라”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도에 또 새해를 알리는 해가 뜬다. 2025년 을사(乙巳)년 뱀의 해다. 12간지 동물 중 뱀은 교활하고 사특하다고 여겨져 일반인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러나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주고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올해는 강화군민 모두가 생존력 강한 뱀의 지혜를 익혀 어려운 세상살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 생각지도 못한 계엄과 탄핵, 대형 참사가 일상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가고, 강화군은 강화도의 발전과 강화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위한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150년전 강화도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1875년 강화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운양호(雲揚號) 사건이다. 조선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화도에서 일본군과 한바탕 전투를 치른다. 일본군은 조선 해안가를 탐사한다며 조선의 허락도 없이 무모하게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을 시도했다. 일본군은 무기를 동원해 조선군과 민간에 만행을 부렸다. 강화도에서 영종도로 간 일본군은 많은 조선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 사건은 다음해 조선과 일본이 체결하는 강화도조약의 단초가 됐다. 이후 조선은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외부 세력에 제대

로 대응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다 35년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전 강화도 일대에는 많은 외국의 이양선(異樣船)들이 출몰해 강화도와 조선 정부를 압박했다. 조선군은 강화도 일대에서 1866년 프랑스군과, 1871년에는 미국군과 전투를 벌여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당시 강화도는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였다. 서해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강화를 거쳐야 했다. 그만큼 강화는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같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국 세력들은 강화로 접근했으며 강화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문제는 조선이 물밑 듯 밀려오는 외부 세력을 밀어내기에만 급급했을 뿐 전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실권자인 대원군은 외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쇄국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힘없는 조선이 아무 대책없이 문만 닫는다고 해서 그 문이 닫아지는 것인가. 조선은 외부에 움직임에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외부는 조선을 가만히 놓아 두지 않았다. 서양은 물론이고 서양 문물을 막 배우기 시작한 일본은 그들이 배운 걸 조선에 써먹으며 조선을 호시탐탐 노렸다. 세계 강대국들이 짜놓은 제국주의 판에 조선만 독야청청하며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오랑캐라고 배척하고 조선은 당신네와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오지않을 그들이 아니었다. 당시 조선은 세계적인 움직임을 오직 중국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다. 중

국만이 다른 세상을 볼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다. ‘발톱빠진 호랑이’인 중국도 서양 세력에 쫓겨 ‘자기 코가 석자’였다. 힘도 없으면서 욕심만은 가득해 조선을 무조건 자기 품안에만 두려고했지 결코 도움을 줄 수 없었다. 19세기 후반들어 서양의 제국주의는 “밖으로, 밖으로”를 외치며 땅을 따먹기 위해 지구 곳곳에 발톱을 드러냈다. 해가 지지않는 나라라 불렸던 영국은 세계 지도를 들고 세계를 누볐다. 영국은 러시아가 조선 동해를 통해 남하할 것을 대비해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은 영국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였다.

150년이 흘렀다. 강화도 일대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교훈을 전해준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못하고 변화와 개방을 외면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역사와 현실은 지금도 끊임 없이 강화도에 변화와 개방을 요구한다. 변화와 개방의 첨병들이 바로 강화군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강화군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려진다.

올해는 강화군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시야(視野)와 사고(思考)가 강화군에만 머물지 말고 인천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한껏 넓혀졌으면 한다. 국내외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강화도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적극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한번이라도 더 해보기를 바란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말이다.

##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 강화군,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 성금 100만원 기탁 이웃사랑 실천하며 훈훈한 연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0일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회장 김학순)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 김학순 회장은 “연말을 맞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성금이 의미 있게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는 약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강화군 내 여성 농업인학습단체로 평소 소외계층 나눔봉사, 고향사랑 환경정화활동 등 행복하고 살기좋은 강화군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강화군, 후계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이웃돕기 쌀 1,200kg 기탁



후계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이웃돕기 기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3일, 후계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회장 주혁돈)에서 이웃돕기 쌀 1,2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는 약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강화군 내 농업인학습단체로, 평소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 등 강화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동참해 쌀 10kg 120개(1,200kg)를 기탁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주혁돈 회장은 “올해도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한뜻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강화지회 이웃 사랑 성금 100만원 기탁



야생생물관리협회 강화지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6일 야생생물관리협회 강화지회(지회장 이진우)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진우 지회장은 “소외된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야생생물관리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준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당신이 있어 세상은 따뜻합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정성이 강화를 밝힙니다!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기탁



길상면 체육진흥후원회 기탁



교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기탁



선원면 적십자부녀봉사회 성금기탁



6.25참전 강화청소년 유격동지회 내가면봉회 이웃사랑 물품기탁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시루떡 나눔 행사



송해면 강화능협 농가주부모임 온기나눔 행사



양사면 하점성당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하점면 노인회 지역학생들 위한 장학금 300만 원 전달



화도면 읍·면 평가 시상금 50만 원 성금으로 쾌척

# 겨울철 노인건강관리 10가지 수칙

이제 추운 계절이 되었다. 노년기에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건강의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 운동량도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적어지고 혈압은 올라간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주의해야 할 병들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고혈압과 뇌졸중(중풍), 관절염, 낙상(넘어지거나 미끄러짐)에 의한 손상, 화상, 피부 건조증, 우울증 등이다.

이런 겨울철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건강관리 방안을 요약하여 매일 실천해볼 필요가 있어서 10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자

겨울철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앓게되는 병은 감기나 독감, 폐렴같은 호흡기 질환이다. 이런 호흡기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 특히 평소에 기관지염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분들일수록 수분섭취를 많이 하면 기침과 가래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감염병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찬기운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분섭취를 많이 하면 혈액의 농도가 묽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나 코, 눈, 입의 점막이 말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수분섭취를 많이 하면 훨씬 낫다. 이때 수분섭취는 그냥 생수를 마셔도 좋고 따뜻한 보리차나 과일차, 허브차, 주스 등 모든 것이 도움이 되며, 몇잔을 마셨는지 구태어 따지지 말고 소변색이 맑은 색으로 나올때까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 실내습도 높이고 환기 자주 하기

역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조한 공기와 실내 오염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래를 널어놓거나 화분을 이용하거나 가습기를 활용하여 실내 습도를 높여주고 하루 서너차례의 환기로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3. 손씻기와 더운 목욕 자주하기

노인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겨울철 질병 합병증이 혈액순환 장애 질환이다. 손발시림이나 저림, 다리 쥐내림은 물론이고 하지정맥 혈전증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모두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생기는 질병들이다. 겨울철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는 따뜻한 욕탕 목욕처럼 좋은 것이 없다.

단지, 너무 자주 목욕을 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목욕 후에는 반드시 로션이나 오일을 이용하여 보습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 4. 매일 낮시간에 체조와 산책 및 운동하기

춥다고 실내에서만 지내다보면 근력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전신 근육통과 관절통이 더 심해진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하루에 30분 식이라도 반드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는데, 특히 햇빛을 쬐면서 야외 운동을 하는 것이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하루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는 반드시 밖으로 나와 체조, 스트레칭, 걷기운동을 실천하면 겨울철 만성질환의 악화나 합병증 예방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

## 5. 신체보온에 유의

외출을 하거나 야외운동을 할 때 혈관이 수축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추운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신체 보온을 위해서는 모자, 목도리, 마스크,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또 겨울철 미끄럼 낙상은 노인분들에게는 자칫 골절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발에 잘 맞고 따뜻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 6. 고혈압과 당뇨병은 더욱 철저히 관리

평소에 잘 관리되던 혈압이나 혈당이 신체활동이 적고 실내에서 간식섭취가 잦아지는 겨울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결과 뇌졸중이나 당뇨 합병증 발생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의 혈압약, 당뇨약 복용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수시로 혈당과 혈압을 재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안전사고 유의

겨울철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야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때 제일 주의하여야 할 일이 미끄럼과 낙상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운동이나 야외활동은 반드시 기온이 올라간 한낮시간에만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평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보행보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 8. 금연 및 과음 주의

금연이야 언제든 계속하시는 것이 좋지만, 겨울철 흡연은 실내환기 부족과 니코틴 흡입량 증가의 위험이 높으며, 가족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 장애의 위험이 흡연시에 더 악화되므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하고, 추위를 이기겠다고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운동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알콜독성이 더 높아지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필수 예방접종 받기

이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겠지만, 혹시 아직도 안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다. 독감은 늦으면 3-4월까지도 발생하므로 조금 시기가 늦어도 맞아두는 것이 현명하고 독감과 함께 폐렴예방접종을 하면 호흡기질환 예방효과가 더 높아진다.

## 10. 활발한 사회활동 유지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계절성 우울증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취미활동이나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 대화활동, 복지관 활동 등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철일수록 사람들과 가까이 접하고 대화할 여유가 더 많아지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윤종률 교수의 백세인생 >



# 농촌과 도시가 서로 행복해지도록 강화농협이 함께합니다

**'강화농협' 『총화상』 수상과  
『전국농협 윤리경영대상』 수상을  
(전국 1,111개 농협)  
축하드립니다.**

2025년 을사(乙巳)년 새해에도 조합원 그리고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농협최고 권위의 상인 「총화상」을 수상하며 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과 농협중앙회에서 윤리경영대상 상금으로 받은 100만원, 임직원 400만원 과 강화농협에서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1,000만원을 합 하여 “총 2,000만원의 불우이웃 성금”을 기탁하였다.

## 강화농업협동조합

- |        |                        |      |                            |    |              |
|--------|------------------------|------|----------------------------|----|--------------|
| 본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6   | 전화번호 | 032-934-0541~6             | 팩스 | 032-934-0550 |
| 선원지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25 | 전화번호 | 032-933-4310~1             | 팩스 | 032-933-5709 |
| 송해지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39  | 전화번호 | 032-934-4382~3             | 팩스 | 032-933-7429 |
| 중앙지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1 | 전화번호 | 032-934-9790~1             | 팩스 | 032-934-9792 |
| 하나로마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68   | 전화번호 | 032-934-0901~3             | 팩스 | 032-934-0905 |
| 영농자재센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18  | 전화번호 | 032-933-0548, 032-934-0548 | 팩스 | 032-934-1548 |

##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http://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